

제2장

한국 중고령자의 소득·소비 분석

- 생애소득 가설을 중심으로 -

박시내

제1절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력의 고령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발전의 저하, 복지부담의 가중, 고령 실업률 상승, 노인빈곤 등 잇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히 유연화 되면서 고용과 임금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른바 ‘사오정’, ‘오륙도’ 등은 조기퇴직을 일컫는 용어로 기존의 종신고용 관행이나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 수준은 OECD국가들에 견주어보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체계가 미비하여¹⁾ 고령자들이 낮은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하는 한편, 은퇴문화가 부재하여 낮은 나이까지 일하는 것이 장려되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비 및 저축 행태 분석의 토대가 되는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은 개인의 일생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청·장년기에는 저축이 발생하고, 노년기에는 소비에 비해 소득이 작아 축적된 자산을 소비에 사용하는 음(-)의 저축을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개인은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소득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나, 중년기에는 경제활동을 통한 소

1)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퇴직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장지연 외, 2008).



득을 획득하여 소비되지 않는 부분을 저축하여 노후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은퇴시점 이후에는 소득이 크게 감소함으로 음(-)의 소득이 발생하고 중년기에 축적한 저축액을 통해 소비를 충당하게 된다. 이 가설과 관련된 서구의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국내의 실증연구는 데이터의 부족 및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제한적인 연구만이 수행되었다(김상봉, 2003; 김경아·김혜주 2007; 윤재호·김현정 2010). 한편 가구의 소득, 소비 행태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한국가구의 소득 및 소비 정점시기가 과거에 비해 빨라져 이미 40대 후반에 이미 소득 정점에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같은 현상은 노동시장의 조기퇴직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퇴직과 소득의 감소는 노인빈곤을 증가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고용지표의 해외비교를 통해 한국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의 국제적 수준을 논의한다. 둘째, 연령-소득 프로파일을 통해 소득 및 소비의 정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고, 생애주기 가설 부합여부를 검증한다. 셋째, 한국 중·고령가구의 소득 및 소비 추이를 횡단 및 종단 분석하고, 해외 국가와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넷째, 은퇴 전후의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은퇴 전후 집단 간 소비결정요인의 차이를 논의한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1990~2010)」를 사용하였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생애주기 가설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청년기까지는 소득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음(-)의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나 청년기 이후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이 축적됨으로 소비보다 소득이 많아지게 되어 양(+)의 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노년시기를 대비하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게 된다. 노년기에 이르러는 대부분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중년기에 축적한 부를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생애주기 가설을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세대 g 에 속한 가구가 가구원의 은퇴할 때의 연령 N 까지 일정한 소득 y_g 를 취하고

(이에 따라 생애자원(resources) $H_g = y_g \cdot N$ 임), T년 동안 생존하며,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시간선호율은 0이며, 최적소비는 $c = H_g/T$ 로 일정하다고 하면, 은퇴할 때까지 연령 'a'인 개인의 부는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²⁾.

$$W_{a,g} = \frac{a}{N} \left(1 - \frac{N}{T}\right) H_g \quad \text{for } a = 0, \dots, N \quad (1)$$

그리고 그 후에는 다음과 같이 감소한다³⁾.

$$W_{a,g} = \left(1 - \frac{N+a}{T}\right) H_g \quad \text{for } a = 0, \dots, (T-N) \quad (2)$$

이러한 연령-부의 축적과정은 낙타등(hump shape)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생애에 걸친 자원과 독립적이다.

$$W_{a,g} = f(a) H_g \quad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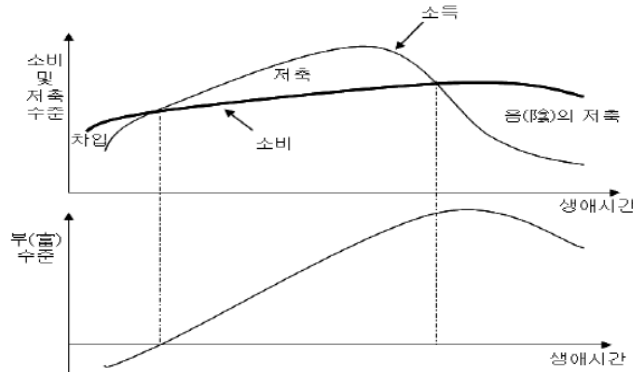
여기서 $f(\cdot)$ 는 연령에 대해 오목함수이다. 식 (3)은 부의 축적과정의 형태가 자원에 상관없이 연령에만 의존하며, 생애자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축적과정의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은퇴 전의 연령이 'a'이므로 이 시기에는 $a \cdot y_g$ 의 소득을 얻고, 은퇴할 때까지 소비는 $a \cdot c$ 가 된다. (1) 식과 (2)식에 $H_g = y_g \cdot N$ 과 $c = H_g/T$ 를 대입한 후 빼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W_{a,g} = a(y_g - c) = a \left(\frac{H_g}{N} - \frac{H_g}{T} \right) = \frac{a}{N} \left(1 - \frac{N}{T}\right) H_g$$

3) 연령 'a'인 개인이 T년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생애 자원(resources)은 H_g 가 되고, 은퇴 후 연령 $N+a$ 까지의 소비를 뺀 후 $H_g = T \cdot c$ 를 대입하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W_{a,g} = H_g - (N+a) \cdot c = H_g - \left(\frac{N+a}{T}\right) \cdot T \cdot c = \left(1 - \frac{N+a}{T}\right) H_g$$



[그림 2-1] 생애소득 가설에 따른 합리적인 개인의 소비와 저축, 부의 시간경로

2. 선행연구 검토

1990년대 후반부터 은퇴 이후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인구고령화가 현안과제로 부상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개시되면서 이들의 소비 등 미시적 경제행태가 거시경제 및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 소비수준의 변화는 개별 가구 및 거시경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인구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은퇴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들의 소비수준이 이전보다 하락한다면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총수요 감소를 통해서 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퇴가구의 소비수준이 은퇴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인가하는 문제는 연금제도의 개혁 및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에 매우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생애소득가설에 관한 해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은퇴 후의 소비수준에 큰 변화가 없어 이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Banks, Blundell & Tanner 1998, Bernheim, Skinner & Weinberg 2001)와, 은퇴 후 소비 수준이 은퇴 이전에 비해 감소하여 생애소득가설에 반하는 상반된 연구결과(Hurd & Rohwedder 2008)들이 혼재되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⁴⁾. 한편 가구패널을 이용한 국내 연구(안중범·전승훈 2005, 석상훈·장신구 2009 등)들은 은퇴가 소비수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4) 생애소득가설과는 달리 은퇴 후 소비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은퇴 무렵에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를 합리적인 수준보다 더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자발적인 은퇴자보다는 비자발적인 은퇴자는 은퇴 후 소비수준을 더 감소시킨다.

〈표 2-1〉 생애소득관련 국외 연구결과

구분	이용자료	소비지표	주요결과
Bank, Blundell & Tanner(1998)	Pseudo Panel 자료 : 영국 British Family Expenditure Survey의 25년간 횡단자료	- 비내구재 소비	- 생애주기모형 상 은퇴 후 소비 증가율 -2%, 실제 -3%로 나타남.
Berheim, Skinner & Weinberg(2001)	패널자료 : 미국의 PSID, 1978~1990년, 430가구	- 식료품비, 주거비	- 소비수준 평균 14% 감소
Haider & Stephens (2004)	패널자료 : 미국 PSID, RHS(Retirement history survey), HRS(Health & Retirement study)	- 식료품비	- PSID, RHS 자료 상 5~10% 감소 - HRS 자료상 소비불변
Laither & Silverman (2005)	pseudo 패널자료 : 미국 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자료	- 총소비	- 효용함수의 소비-여가간 비분리성 가정 하에 도출한 오일러 방정식 추정 - 은퇴시 소비 16% 감소
Fisher et al.(2005)	pseudo 패널자료 : 미국 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자료	- 총소비, 식료품비	- 총소비(중위값) 2.5% 감소 - 식료품비(중위값) 5.9% 감소
Smith(2006)	패널자료 : 영국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1~11차, 2505가구	- 식료품비	- 은퇴자의 20%는 비자발적으로 은퇴 - 비자발적 은퇴자의 식료품비 7~11% 감소
Aguiar & Hurt(2008)	Pseudo 패널자료 : 미국 CEX 자료	- 비내구재	- 소비 5% 감소 - 식품, 의료, 교통비 제외할 경우 6% 증가
Hurd & Rohwedder(2008)	패널자료 : 미국 CAMS 1~3차 385가구	- 총소비, 비내구재, 소비, 식료품비	- 비내구재, 식료품비 중위값이 각각 0.5%, 3.6% 감소 - 모든 소비지표에서 은퇴전후 소비수준이 통계적으로 동일 - 비내구재 소비의 경우 최상위 4분위의 소비는 18% 증가, 최하위 1분위 소비는 22% 감소



생애소득관련 국외의 연구는 주로 영국과 미국의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검증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널자료인 PSID를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들은 소비지표로 식료품비와 주거비를 사용하였다. Berheim, Skinner & Weinberg(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은퇴 후 소비수준은 평균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Haider & Stephens(2004)의 연구결과는 PSID나 RHS 자료 상 소비는 5~10% 감소했으나, HRS 자료 상 소비는 불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인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로 수행된 연구들은 은퇴 후 소비수준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다. Bank, Blundell & Tanner(1998)는 은퇴 후 소비 증가율은 실제로 -3%로 나타나며, Smith(2006)는 은퇴자의 20%는 비자발적으로 은퇴하였는데, 비자발적 은퇴자의 식료품비는 은퇴 후 7~11%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대표적인 가구소득 조사로 전국의 9천여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가구주의 특성,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가구구성 및 주거 특성을 조사한다. 가계조사의 소득과 소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⁵⁾으로 구성된다.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되며,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의류·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 소비지출로 구성된다.

〈표 2-2〉 「가계동향조사」 개요

구분	가계동향조사(2010년 기준)
조사주기	매월
조사대상	전국의 일반가구*
조사기간	매월 1일~말일
표본설계 (모집단)	인구총조사(2005년) 10% 표본조사구 중 섬,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7,011조사구
표본규모	9,000 가구
조사표 항목	가구주 특성,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가구구성 및 주거특성

주 : *농림어가구,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

5)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등을 포함하며, 가계조사에서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연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표 2-3〉 분석대상자(45~64세)의 기본특성 요약

(단위 : %, 만원, 명)

구분		전체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인적 특성	연령			
	45세~54세	63.1	65.5	56.8
	55세~64세	36.9	34.5	43.2
	평균연령	52.9	52.6	53.7
	교육수준			
	초졸이하	17.2	10.3	35.6
	중졸	18.3	16.4	23.4
	고졸	41.1	44.8	31.1
대졸이상	23.5	28.5	9.9	
경제 활동 특성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5.0	89.5	72.7
	비취업자	15.0	10.5	27.3
	종사상 지위			
	상용직	39.0	44.1	21.5
	임시직	16.8	12.1	32.8
	일용직	11.1	9.4	16.9
	고용주	8.4	9.5	4.6
	자영자	24.6	24.8	24.2
	무급종사자	0.1	0.2	0.03
	직업			
	전문·관리직	15.9	18.5	7.1
	사무직	9.5	11.0	4.8
	서비스·판매직	52.9	55.2	45.5
	기능직	21.0	14.5	42.4
농림어업직	0.5	0.7	0.2	
가구 특성	소득			
	총소득(만원)	333.1만원	374.1만원	223.1만원
	총지출(만원)	268.9만원	302.2만원	179.4만원
	총소득-총지출(만원)	64.2만원	71.9만원	43.7만원
	가구유형			
	1세대	31.1	27.4	40.9
	2세대	62.7	66.1	53.6
	3세대 이상	6.3	6.5	5.5
가구원 수(명)	2.9명	3.2명	2.2명	
취업자 수(명)	1.5명	1.7명	1.1명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



본 연구는 중고령자(45~64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시기는 1990년에서 2010년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자 특성치는 <표 2-3>에 제시되어있다. 인적특성을 살펴보면 중고령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2.9세이며, 남성 가구주는 52.6세, 여성 가구주는 53.7세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1.1%, 대졸이상인 23.5%, 중졸이 18.3%이며, 남성 가구주는 대졸이 28.5%로 여성 가구주(9.9%)보다 18.6%p 높다.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중고령 가구주 중 취업자는 85%로 남성 가구주는 89.5%, 여성 가구주는 72.7%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는 남성 가구주는 취업자의 44.1%가 상용직이며, 자영자는 24.8%, 임시직은 12.1%, 일용직 9.4%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 가구주는 상용직 비중이 21.5%로 남성 가구주에 비해 22.6%p 적으며, 임시직은 32.8%, 자영자는 24.2%로 나타난다. 중고령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가장 높아 52.9%에 이르며, 기능직 21.0%, 전문·관리직은 15.9%순으로 나타난다. 직업분포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 가구주는 전문·관리직이 18.5%로 여성 가구주(7.1%)보다 11.4%p 높으며, 여성 가구주는 기능직의 비중이 42.4%로 남성 가구주(14.5%)보다 27.9%p 높다.

한편 전체 중고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33.1만원, 남성 가구주 가구는 374.1만원, 여성 가구주 가구는 223.1만원으로 여성 중고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151만원 적다. 소득과 지출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는 소득이 지출보다 71.9만원 더 많으며, 여성 가구주 가구는 소득이 지출보다 43.7만원 더 많다.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는 2세대의 비중이 66.1%, 1세대는 27.4%, 여성 가구주 가구는 2세대가 53.6%, 1세대는 40.9%로 여성 가구주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1세대 비중이 높으며, 남성 가구주 가구는 여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2세대의 비중이 높다. 평균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중고령 가구는 2.9명으로 3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며, 남성 가구주 가구는 3.2명, 여성가구주 가구는 2.2명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여성 가구주 가구보다 1명 많다. 가구별 취업자 수는 가구 소득기여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전체 중고령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는 1.5명이며, 남성 가구주 가구는 1.7명, 여성 가구주 가구는 1.1명으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는 남성에 비해 0.6명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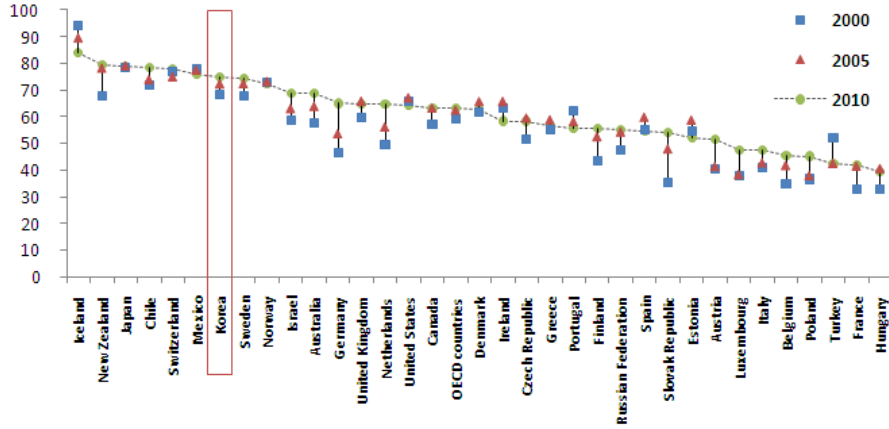
제4절 분석결과

1. 고령자 고용지표 해외비교

한국의 고령자의 노동시장 특성은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로 요약된다. 특히 한국 고령자의 높은 고용률은 주로 남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에 기인한다. 아직까지 고령자를 위한 복지체계가 미비하고, 뿌리 깊은 가부장문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 고령자(55~64세)의 고용률을 2000년, 2005년, 2010년 세 시점을 중심으로 성별로 도시하였다([그림 2-2] [그림 2-3]). OECD 남성의 평균 고용률은 60% 내외로 2000년 59.2%, 2005년 62.4%, 2010년 63.0%로 점진적으로 상승해왔다. 한편 여성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0% 수준으로, 2000년 36.7%, 2005년 41.7%, 2010년 45.4%로 남성에 비해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나 시계열적인 상승률은 좀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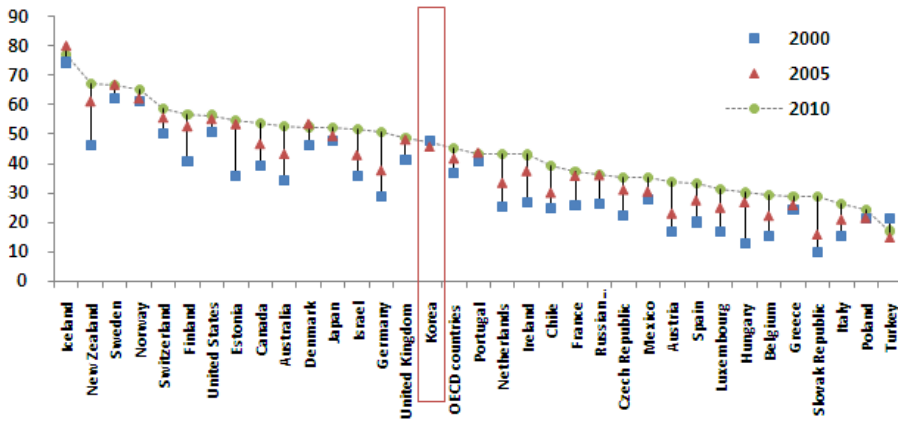
한국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2000년 68.5%, 2005년 72.2%, 2010년 75.1%로 10년 전에 비해 6.6%p 상승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 고령 남성의 상승률인 3.8%p보다 2.8%p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함께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78.8%), 멕시코(75.8%), 스위스(77.9%), 스웨덴(74.3%), 독일(65.0%), 호주(68.6%), 영국(64.9%), 캐나다(63.3%), 미국(64.4%) 등이다. 반면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47.7%), 벨기에(45.6%), 폴란드(45.2%), 터키(42.7%), 프랑스(42.1%), 헝가리(39.6%) 등이다. 요약하면 북유럽국가와 아시아권, 영미권 국가들의 고령 남성 고용률이 높은 수준이고, 남유럽 국가들의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다⁶⁾.

6) 고령자의 고용률은 노동시장 상황과 사회복지체계, 문화적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2011)

[그림 2-2] OECD 국가의 고령자(55~64세) 고용률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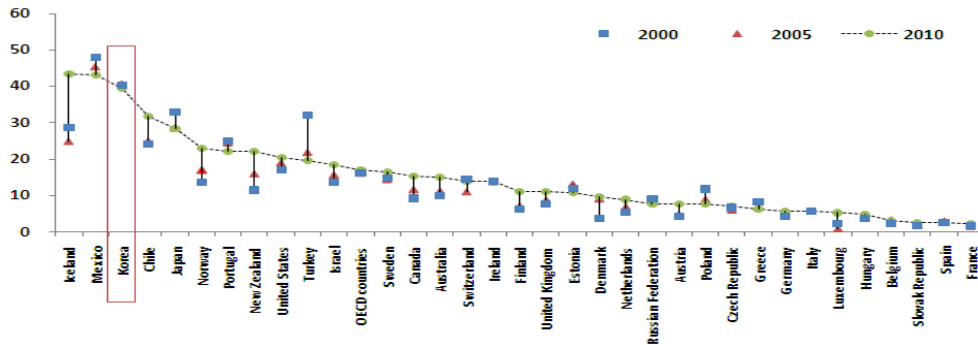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2011)

[그림 2-3] OECD 국가의 고령자(55~64세) 고용률 : 여성

한국 고령 남성의 고용률이 높은 수준인 반면 고령 여성의 고용률은 47.1%로 남성에 비해서는 매우 낮으며,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고용률 추이는 2000년 47.9%, 2005년 45.7%, 2010년 47.1%로 2005년에 감소하였다가 2010년 반등하였으나, 2000년 고용률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국가별 고령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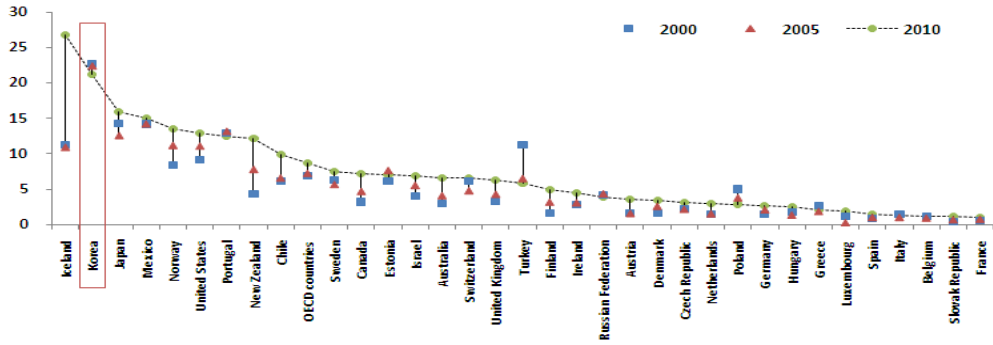
웨덴(66.8%), 노르웨이(65.0%), 스위스(58.8%), 미국(48.9%), 캐나다(53.5%) 등이 높은 수준이며, 체코(35.5%), 멕시코(35.4%), 프랑스(37.5%), 헝가리(30.1%), 이탈리아(26.2%), 폴란드(24.2%) 등은 낮은 수준이다. 북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은 고령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높은 편이나, 멕시코, 한국, 일본 등은 고령 남성의 고용률은 높은 반면 고령 여성의 고용률은 낮다는 특성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OECD국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 수준은 어떠하며, 한국은 어느 수준인가? [그림 2-4]와 [그림 2-5]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을 도시한 것이다. 65세면 대부분 주된 직장에서 퇴직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용률은 급격히 하락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의 OECD평균은 남성 17.1%, 여성은 8.7%로 매우 낮다. 반면 한국은 남성 39.5%, 여성 21.2%로 OECD 평균에 비하여 각각 22.4%p, 12.5%p 높다. 65세 이상 고령 남성 10명 중 4명, 여성은 5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고용률이 더 높은 국가는 남성의 경우 아이스란드(43.4%), 멕시코(43.3%)이며, 여성은 아이스란드(26.8%)에 이어 두 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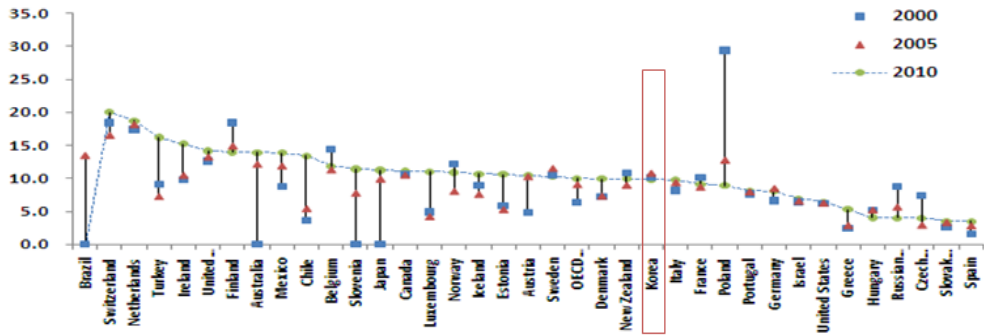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2011)

[그림 2-4] OECD국가의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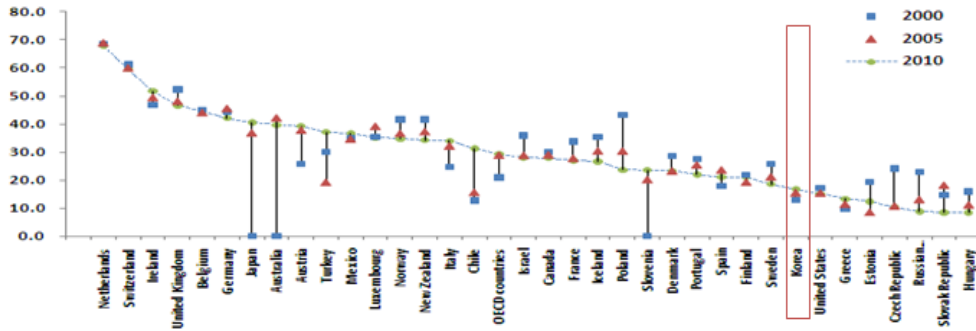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2011)

[그림 2-5] OECD국가의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 여성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2011)

[그림 2-6] OECD국가의 고령자(55~64세) part-time 비중 : 남성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2011)

[그림 2-7] OECD 국가의 고령자(55~64세) part-time 비중 : 여성

그렇다면 한국 고령층의 파트타임 비율은 어떠한가? 한국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들의 종사상 지위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 [그림 2-6]과 [그림 2-7]은 한국 고령자의 파트타임 비중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것이다. 고령 남성의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20.1%), 네덜란드(18.7%), 영국(14.2%) 등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5~20% 내외이다. 한국 고령남성의 파트타임 비중은 2000년 10.1%, 2005년 10.7%, 2010년 9.8%로 최근으로 올수록 약간 감소해왔으며, OECD 국가 평균인 10%에 약간 못 미친다⁷⁾([그림 2-6]).

한편 한국 고령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은 2010년 16.8%로 남성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은 증가해왔으나⁸⁾, OECD 국가 평균인 29.3%에는 훨씬 못 미친다. 고령 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67.8%), 스위스(59.6%), 영국(46.6%), 벨기에(44.4%), 독일(42.0%) 등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40%~70%를 차지한다⁹⁾. 이들 국가는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로 비교적 낮은 시점까지 파트타임의 형태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보다 고령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이 낮은 국가는 미국(15.1%), 그리스(13.3%), 체코(10.3%), 러시아(8.8%), 헝가리(8.4%) 등이다.

고용지표의 해외비교를 통해 한국 중고령자의 고용지표의 객관적 수준을 가늠할 수

7) 절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 한국 고령자의 파트타임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한국 고령근로자는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8) 고령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의 시계열 추이는 2000년 12.9%, 2005년 15.5%, 2010년 16.8%로 나타난다.
 9) 특히 네덜란드 고령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은 70%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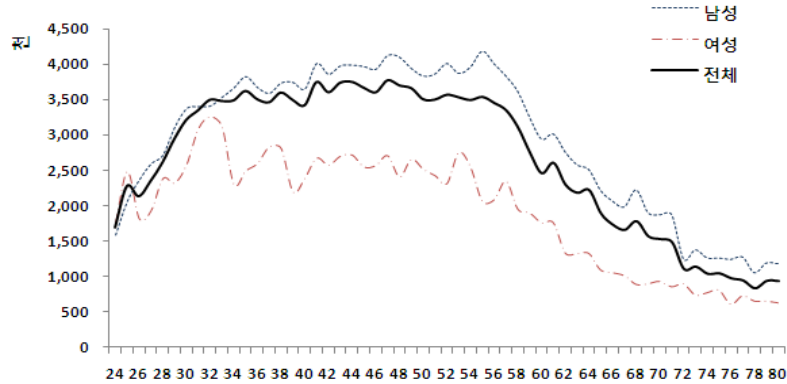
있다. 한국 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은 수준인데, 이는 성별로 차이가 있다. 고령남성(55~64세)의 경우 OECD 국가 중 고용률 상위그룹에 속하지만, 고령여성의 경우 OECD 국가의 중간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한국 고령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OECD국가 중 고용률 상위그룹에 속한다. 한편 임금근로자 중 파트타임 비중만 비교할 경우 한국 고령근로자의 파트타임 비중은 OECD 국가에 견주어보아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 고령취업자는 낮은 시점까지 임금근로자로 남지 않으며,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령자 고용률 해외지표 비교를 통해 한국 고령자의 높은 고용률은 고령남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가와 65세 이상 노령자의 높은 고용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연령별 소득분포

가. 생애소득 곡선

생애주기별 소득과 소비변화를 관찰하려면 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연령대별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득과 소비 자료는 가구단위로 수집되고 있으며, 가구단위로 수집된 소득과 소비를 개인단위로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소득 분석 연구들은 가구주 중심으로 조사된 가구소득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개인이나 가구주의 생애주기별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려면, 동일한 개인이나 가구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소득과 소비를 분석할 경우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에는 가구주 연령 효과뿐만 아니라 출생년도 효과,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 등이 혼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 분석에는 이 같은 한계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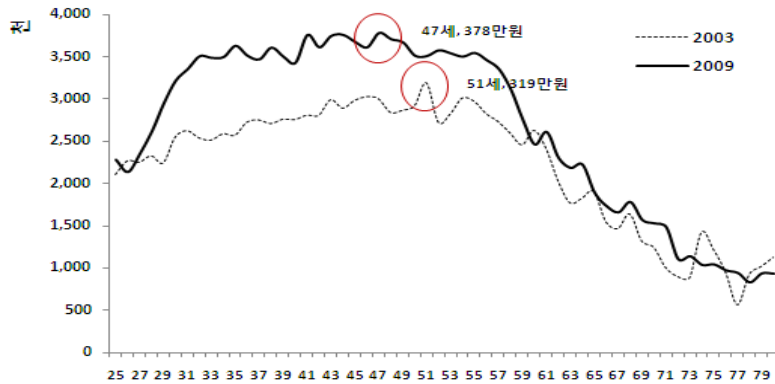
[그림 2-8]은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연령-소득 profile이다. 개인의 생애소득(연령별 소득)은 청년기 이후 증가하여 중년기에 정점을 이루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시점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또한 소득곡선은 성별로 달리 나타나는데, 남성 가구주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기울기가 여성에 비해 가파른 한편 소득 최정점 이후 소득감소의 기울기 역시 여성보다 가파르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증가폭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이 심하고 노동지위가 불안정하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9)

(단위 : 원)

[그림 2-8] 연령-소득 profile : 2009년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3, 2009)

(단위 : 원)

[그림 2-9] 연령-소득 profile : 2003년, 2009년

연령-소득 profile을 2003년도 자료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2009년 소득곡선의 소득상승 기울기가 2003년에 비해 가파른 한편 소득 정점은 ‘47세’(378만원)로 2003년보다 가구소득의 정점이 앞당겨진 점이다([그림 2-9]). 2003년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상승은 폭은 2009년보다 적으나 소득 정점은 ‘51세’(319만원)로 50대 초반



까지 지속적인 가구소득의 상승이 관찰된다. [그림 2-9]에서 나타나는 연령-소득 곡선의 변화는 우선적으로 임금구조 및 고용관행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가 연령증가에 따른 증가폭은 커진 반면 퇴직시점이 점차 이른 시기로 앞당겨지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이 연령별 소득구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그렇다면 연령별 소득과 소비는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가? 생애소득가설에 의하면 청년기에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음(-)의 저축이 발생하고, 장년기·중년기에 이르러 양(+)의 소득이 발생한다. 고령기에는 소비수준은 일정한 반면 소득수준은 크게 낮아져 음(-)의 저축이 발생하는데, 이 시기의 소득 상실분은 이전시기에 저축한 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 가설에 의하면 고령기의 소득 수준은 감소하나 소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소비 곡선은 이 가설과 부합하지 않는다. 소비는 소득과 함께 증가하다가 은퇴 이후 소득과 소비는 다 같이 감소한다. 또한 소비 곡선은 소득 곡선의 하향에 위치하며, 증감 패턴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2003년과 2009년의 소득-소비 곡선에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2003년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 소비 증가폭이 2009년에 비해 완만하며 50대 초반까지 증가하는 경향인데 반해, 2009년에는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 소비 증가폭이 가파르며, 소득·소비의 정점이 40대 후반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대체적으로 가구의 소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령기에는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수준 역시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10], [그림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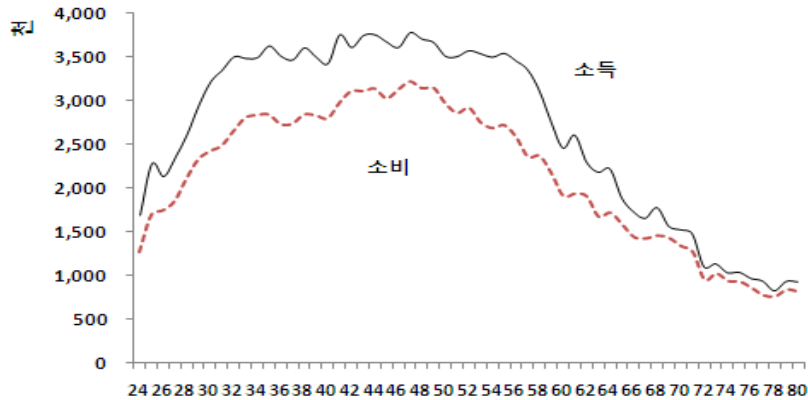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3)

(단위 : 원)

[그림 2-10] 연령-소득·소비 profile : 2003년

10)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으로 매우 크다.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9)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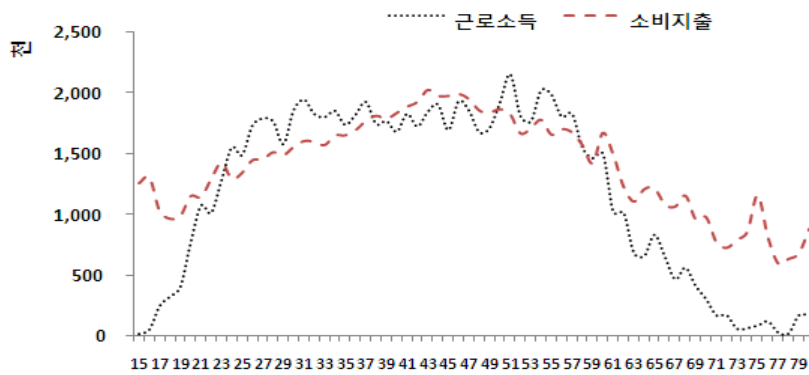
[그림 2-11] 연령-소득·소비 profile : 2009년

그러나 가구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다양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고령자의 소득구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다. [그림 2-12]와 [그림 2-13]은 연령별 근로소득과 소비지출을 제시한 것이다.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정점은 '51세'(약 216만원)로 각 구간별 편차가 있으나, 대략 50대 초반까지 근로소득이 상승하다 이후 감소한다. 반면 소비지출의 정점은 '43세'(약 203만원)로 근로소득 정점보다 매우 이른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13]은 2009년도 자료로 작성된 그래프이다. 2009년도 자료의 근로소득 곡선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여 '33세'(273만원)에 정점에 이르고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50대 중반이후 급격히 하락한다.

한편 소비지출 곡선은 근로소득보다 연령증가에 따른 상승폭이 적으며, 소비지출액의 정점은 '42세'(247만원)이며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지만 기울기는 근로소득보다는 완만하다. [그림 2-12]와 [그림 2-13]을 비교하면 소비지출의 패턴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근로소득 곡선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도에는 50대 초반까지 근로소득의 증가가 완만하게 이뤄진 반면 2009년에는 30대에 이미 근로소득이 정점에 이룬 후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그림 2-13]의 소득곡선은 생애소득 가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생애소득가설에 의하면 청년기에는 음(-)의 저축, 중·장년기에는 양(+), 고령기에는 다시 음(-)의 저축이 발생하며, 고령기에는 이전의 저축분을 소비하며 살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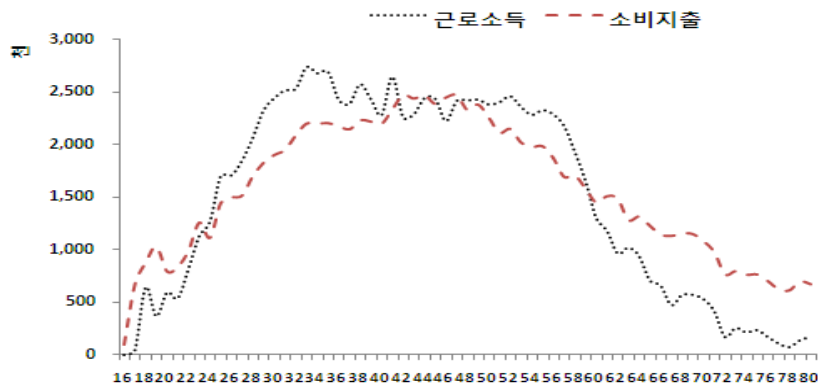
게 된다. 이 그래프는 생애소득 가설과 거의 부합한 형태이다. 20대 중반까지는 근로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으나, 2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 중반까지는 지출보다 근로소득이 많으며, 노동시장 은퇴 이후인 50대 중반이후에는 지출이 근로소득보다 많다. 그러나 고령기의 소비수준이 완만하게 지속되지 않고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면에서 생애소득 가설과 차이가 있다.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3)

(단위 : 원)

[그림 2-12] 연령-근로소득, 소비지출 profile : 2003년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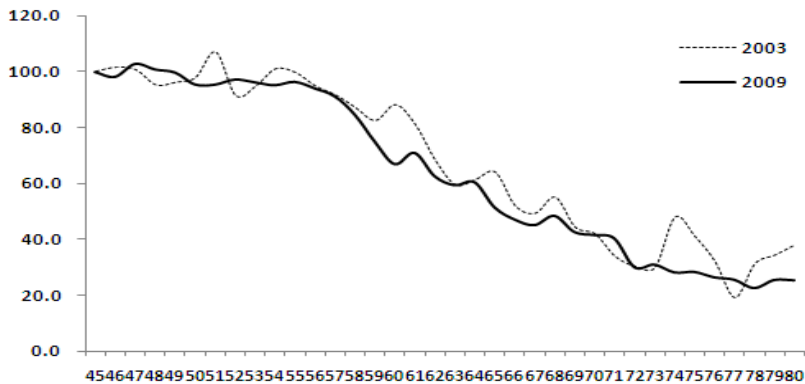
(단위 : 원)

[그림 2-13] 연령-근로소득, 소비지출 profile : 2009년

나. 중·고령 가구의 소득감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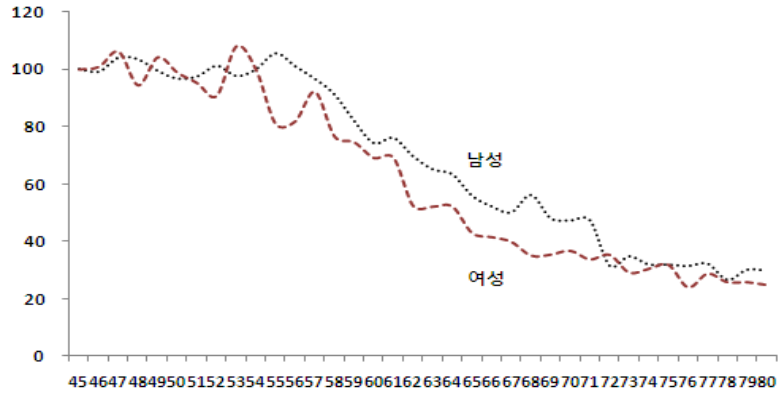
가. 생애소득 곡선에서는 연령별 소득·소비 곡선을 시계열로 검토해보았다. 2003년에 비해 연령별 소비 곡선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의 최정점은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중·고령가구의 소득감소 추이에는 시계열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림 2-14]는 각 년도 별 ‘45세’(100)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중·고령가구의 소득감소 추이이다. 각 년도 별 소득감소 추이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2003년 소득곡선에 비해 2009년 소득곡선의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감소의 폭이 좀 더 가파르며, 감소추이가 연령구간별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도 별 중·고령 가구의 소비 감소 추이 역시 소득 감소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2009년의 연령별 소비감소 추이가 2003년에 비해 가파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6]). [그림 2-15]는 중·고령가구의 소득감소 추이의 성별 비교이다. 이에 의하면 45~50세 무렵까지는 소득감소 추이의 성별 차이가 없으나 50대 이후 남성 가구주에 비해 여성 가구주의 소득감소 추이가 가파르게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 가구주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은 한편 고령기 이후 상대적 소득하락 폭도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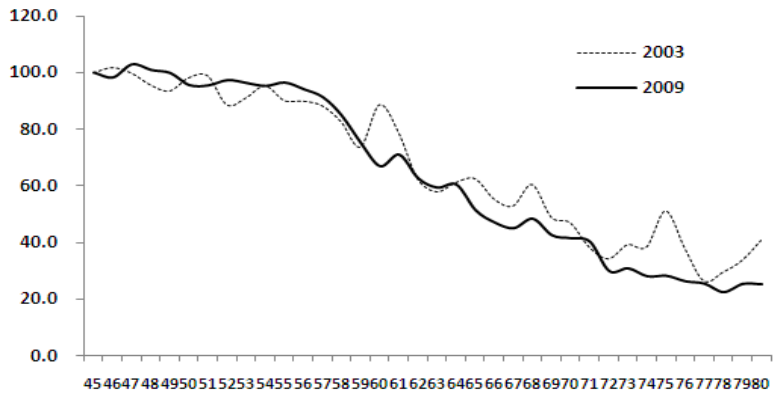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3, 2009)

[그림 2-14] 중·고령가구의 소득감소 추이 : 2003, 2009년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3, 2009)

[그림 2-15] 중·고령가구의 소득감소 추이(성별비교) : 2009년



주 : 45세 소득, 소비를 '100'으로 하여 작성됨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3, 2009)

[그림 2-16] 중·고령가구의 소비감소 추이 : 2003년, 2009년

<표 2-4>는 각 년도 별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의 가구소득을 기준(100.0)으로 설정하고, 이후 연령대의 상대적 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2010년 39세 이하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40대는 109.3로 약간 상승하다가 50대에는 106.3로 30대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60세 이상은 66.0으로 60세 이상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소득 변화 추이를 시계열로 검토하면 지난 20년간 연령별 소득수준 추이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40대 소득은 126.5이고, 50대는 133.1로 30대에 비해 소

득수준이 높으며, 특히 50대까지 꾸준한 가구소득의 상승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40대와 50대의 소득은 116~117 수준으로 30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2005년 이후에는 40대에 소득이 최대화되고, 50대부터 소득의 감소가 이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소득수준의 상대적 하락이 두드러진다. 1990년 60세 이상의 소득은 95.8로 30대 이하에 비해 4.2 감소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에는 19.7, 2010년에는 무려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 변화 추이는 근로소득으로 제한하여 분석할 경우 감소추이가 더 크다. 1990년 60대 이상의 소득은 47.3, 2000년에는 48이었으나, 2010년에는 38.4로 총소득 감소폭에 비해 근로소득의 감소폭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가구주 연령별 소득 변화

구분	총소득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전체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전체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1990년	39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126.5	129.1	123.1	110.3	131.5
	50~59세	133.1	135.6	130.7	118.1	134.2
	60세이상	95.8	117.4	85.5	47.3	79.5
1995년	39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111.9	110.1	115.4	93.4	110.0
	50~59세	129.1	132.8	124.3	123.6	129.5
	60세이상	84.5	101.7	73.4	60.4	91.7
2000년	39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116.9	117.0	123.1	99.4	113.8
	50~59세	116.0	118.4	120.9	101.4	113.6
	60세이상	80.3	88.5	85.9	48.0	78.5
2005년	39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110.8	113.8	112.4	97.6	113.6
	50~59세	108.9	114.8	108.4	96.3	109.9
	60세이상	73.5	85.3	75.1	45.3	70.9
2010년	39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109.3	109.1	122.1	95.6	110.9
	50~59세	106.3	106.4	121.5	92.0	105.0
	60세이상	66.0	71.6	75.8	38.4	58.7

주 : 각 년도 30~39세 소득을 100으로 하여 작성된 수치임

자료 : 「가계동향조사」(1990~2010년)



<표 2-5>는 가구주 연령별 소비 변화 추이이다. 2010년 39세 이하 총소비를 100으로 했을 때, 40대는 116.1, 50대는 104.4, 60세 이상은 65.0으로 50대의 소비수준은 30대 이하와 유사한 수준이나, 60대 이상의 소비수준은 30대 이하의 6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소비변화의 시계열 추이를 검토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1990년 자료를 보면 40대의 소비는 138.4, 50대는 145, 60세 이상은 119.8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비수준이 30대 이하보다 높은 수준으로, 30대에 견주어 그리 뒤쳐지지 않는 소비생활을 영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가구주 연령별 소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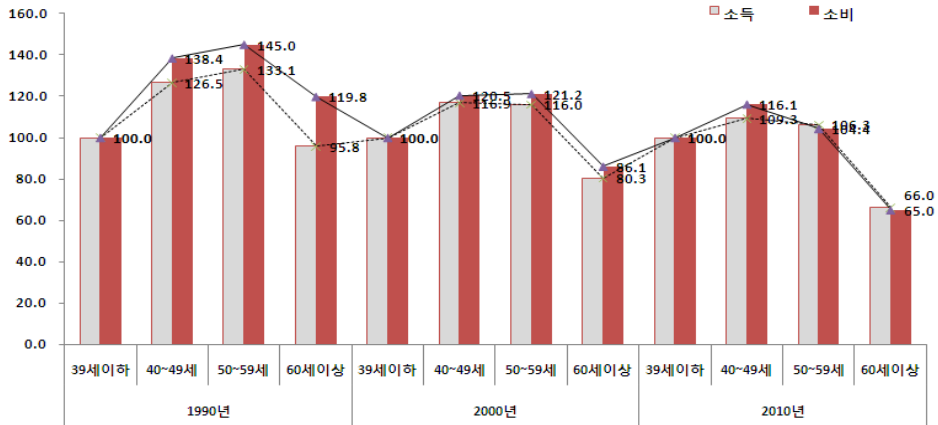
구분		총소비			가구소비 중 소비지출		
		전체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전체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1990년	39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138.4	141.7	131.4	136.8	138.6	129.7
	50~59세	145.0	141.8	112.0	139.2	136.8	137.1
	60세이상	119.8	137.4	73.3	115.9	130.0	102.2
1995년	39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119.0	114.7	125.9	120.7	116.3	125.2
	50~59세	131.5	132.5	130.9	126.6	127.0	124.8
	60세이상	93.3	101.2	89.0	91.0	97.4	85.2
2000년	39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120.5	118.0	126.3	119.8	116.7	124.6
	50~59세	121.2	122.2	123.1	116.3	117.3	116.1
	60세이상	86.1	87.0	89.2	85.2	85.7	86.0
2005년	39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115.3	116.9	116.0	115.2	116.0	114.7
	50~59세	106.8	110.5	105.3	102.7	106.0	99.3
	60세이상	74.2	78.2	75.9	73.9	78.1	72.7
2010년	39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116.1	116.9	121.3	115.9	116.3	117.9
	50~59세	104.4	103.9	113.2	101.2	101.4	104.0
	60세이상	65.0	67.3	70.7	64.7	67.8	65.8

주 : 각 년도 30~39세 소득을 100으로 하여 작성된 수치임

자료 : 「가계동향조사」(1990~2010)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 40대의 소비는 120.5, 50대 121.2, 60세 이상은 86.1로 중-고령자의 소비수준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며, 특히 60세 이상의 소비는 86.1로 1990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고령자의 소비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2010년 40대의 소비는 116.1, 50대는 104.4, 60세 이상은 65.0로 60세 이상은 30대 이하 소비 수준의 65%에 불과하며, 50대의 소비수준은 30대 이하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소득 및 소비 감소의 시계열 추이에서 나타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중-고령자의 상대적 소득과 소비는 모두 감소하였다. 30대 이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의 소득수준은 1990년 133.1에서 2000년 116, 2010년 106.3으로 감소해왔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감소폭은 더욱 커 1990년에는 95.8였던 것이 2000년 80.3, 2010년에는 66.0로 소득수준이 30대 이하의 66%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둘째, 중-고령자의 소득과 소비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소득감소폭이 더욱 크다. 60세 이상의 소득수준은 1990년도부터 이미 30대 이하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고령자의 소비 수준은 그리 낮지 않았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비수준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고령자의 소득과 소비가 유사한 수준에 이르게 됐음을 알 수 있다.



주 : 39세이하 소득, 소비를 '100'으로 하여 작성됨
 자료 : 「가계동향조사」 (1990, 2000, 2010)

[그림 2-17]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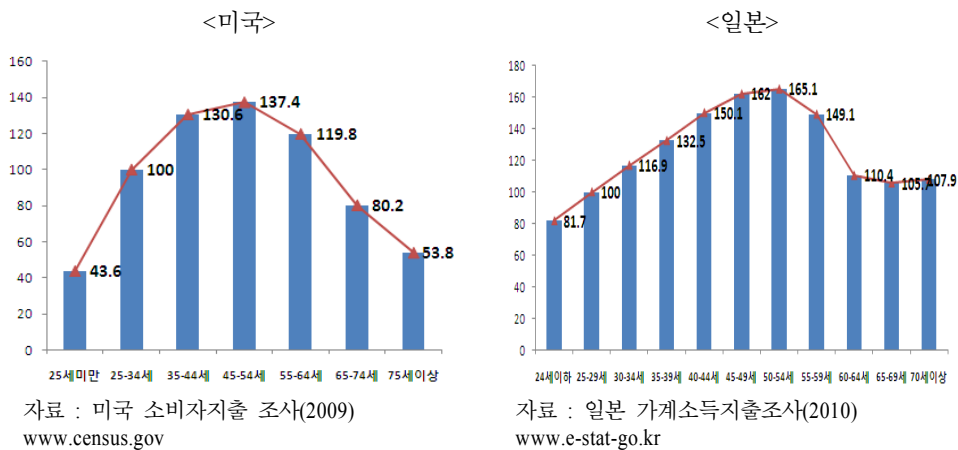
이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노동시장 측면에서 외환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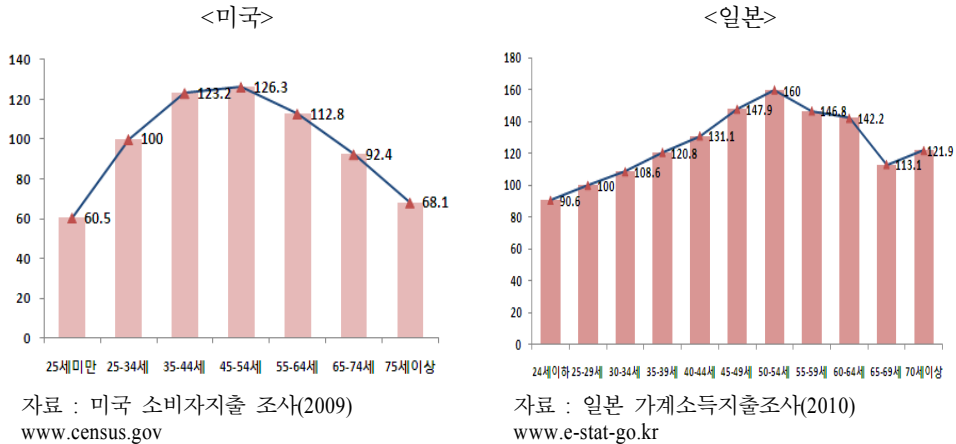
이전까지는 비교적 낮은 시점까지 중고령자가 근로소득을 획득할 수 있어 가계소득, 소비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또한 중고령기에 확보된 저축을 통해 근로소득이 상실된 낮은 시점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소비를 향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달라진다. 노동시장에서의 조기은퇴와 증가한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 구조가 불안정해졌고, 중고령자의 소득과 소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해외국가와 견주어 보았을 때 한국 중고령자의 소득수준은 어떠한가? [그림 2-18]은 미국과 일본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5~34세 가구소득을 기준(100.0)으로 했을 때, 35~44세는 130.6, 45~54세는 137.4로 증가하다가 55~64세는 119.8, 65~74세는 80.2, 75세 이상은 53.8로 50대 이후 상대적 소득수준이 하락함을 알 수 있다. 기준 집단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단선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나, 한국의 50대 소득이 106.3인데 비해 미국의 50대 소득수준(119.8)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며,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수준의 감소폭도 한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고, 낮은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한다. 25~29세 소득을 기준(100.0)으로 했을 때, 소득수준은 50대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50~54세 165.1로 소득의 정점을 이루고 이후 소득수준은 하락한다. 우리나라 가구소득이 40대 후반 정점을 이루는데 반해 일본은 50대 초중반까지 가구소득이 증가하며, 55세 이후 소득감소폭은 우리나라보다는 완만하다.



[그림 2-18] 가구주 연령별 소득수준 국제비교



[그림 2-19] 가구주 연령별 소비수준 국제비교

[그림 2-19]는 미국과 일본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5~34세를 기준(100.0)으로 했을 때, 45~54세 126.3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여 55~64세는 112.8, 65~74세는 92.4, 75세 이상은 68.1로 급격히 감소한다. 한편 일본은 25~29세 소비를 기준(100.0)으로 했을 때, 이후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50~54세에 160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55~59세 146.8, 60~64세 142.2로 완만히 감소한다. 미국과 일본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수준을 비교하면 미국은 40대 후반 이후 소비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지만, 일본은 60대 초중반까지 40대 수준의 소비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일본 사례와 한국 사례를 비교해보면 한국 고령자는 급격한 소득과 소비의 감소를 경험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 고령자의 소득과 소비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으며, 소득의 최정점이 50대 초반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3. 중·고령 가구의 소득·소비 구성

2. 연령별 소득분포에서는 중·고령 가구의 소득분포를 시계열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표 2-6>은 1990~2010년 기간 중 각 시점별 중·고령 가구의 소득구성을 제시한 것이다. 50대의 경우 근로소득의 증가 추이가 발견되는데, 1990년 총소득 대비 58.9%에서 2000년 60.9%, 2010년 65.0%로 1990년에 비해 2010년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1%p 상승하였다. 한편 50대의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소폭 감소하였는데, 사업소득의 경우 1990년 총소득의 29.8%였던 것이 2000년 30.6%, 2010년 25.1%로 1990년



대비 4.7%p 감소하였다. 재산소득 역시 1990년 1.5%에서 2010년 0.5%로 약 1%p 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전소득은 시기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50대와 마찬가지로 60대 고령자도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2.8%에서 2000년 39.2%, 2010년 43.7%로 1990년 대비 10.9%p 상승하였으며, 60대 고령자의 근로소득 비중의 증가는 오히려 50대 증가분보다 크다. 반면 60대 고령자 가구의 사업소득 비중은 1990년 39.2%에서 2010년 24.5%로 14.7%p 감소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조기은퇴 경향이 심화되고, 고령자의 일자리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고령자는 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 등으로 노후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 2-6〉 고령가구의 소득 구성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 (90-10)	△ (00-10)
50대	경상소득	95.68	95.48	94.33	94.50	96.15	0.47	1.82
	근로소득	58.89	61.65	60.89	63.02	64.97	6.08	4.08
	사업소득	29.76	27.47	30.55	24.86	25.14	-4.62	-5.41
	재산소득	1.47	1.75	1.89	0.73	0.46	-1.01	-1.43
	이전소득	5.55	4.61	6.67	5.89	5.58	0.03	-1.09
	비경상소득	4.32	4.52	6.02	5.50	3.85	-0.47	-2.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
60대	경상소득	93.62	95.44	91.51	93.44	93.84	0.22	2.33
	근로소득	32.75	46.01	39.20	43.88	43.68	10.93	4.48
	사업소득	39.19	28.74	25.70	24.24	24.50	-14.69	-1.2
	재산소득	2.75	3.10	3.82	1.67	1.19	-1.56	-2.63
	이전소득	18.93	17.59	22.80	23.64	24.48	5.55	1.68
	비경상소득	6.38	4.56	8.49	6.56	6.16	-0.22	-2.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

주 : 전체 가구의 총소득에서 각 구성항목이 차지하는 비율(mean share of aggregate income)을 제시함
 자료 : 「가계동향조사」(1990~2010년)

〈표 2-7〉은 고령가구의 소득구성 해외비교를 제시한 것이다¹¹⁾. 여기에 제시된 국가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1) 소득구성 항목은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와 차이가 있음

〈표 2-7〉 고령가구의 소득구성 해외비교

구분	소득구분						다른 가구원의 기여	
	근로 소득	자산 소득	공적이 전소득	사적이 전소득	개인 연금	기타		
50~ 64 세	스웨덴	64.4	2.4	15.4	0.4	10.7	0.1	6.5
	덴마크	66.4	4.9	20.7	0.8	4.4	0.2	2.6
	네덜란드	53.8	5.5	18.8	0.3	11.7	0.2	9.6
	스위스	59.0	6.6	12.4	0.6	7.9	0.9	12.7
	미국	62.9	3.9	12.6	1.3	7.2	2.7	9.2
	오스트리아	32.2	3.4	43.2	0.7	3.8	0.5	16.3
	독일	51.7	4.9	27.2	0.5	2.6	0.1	12.9
	스페인	47.9	3.1	36.7	1.0	1.1	0.2	9.9
	이탈리아	37.2	2.8	40.7	1.1	2.6	0.0	15.5
	그리스	48.5	7.4	37.3	1.7	0.6	0.1	4.3
65 세 이 상	스웨덴	6.6	2.2	79.3	0.2	8.0	0.0	3.7
	덴마크	6.9	6.8	64.1	0.1	18.4	0.2	3.5
	네덜란드	5.2	3.6	55.5	0.1	28.9	0.1	6.5
	스위스	7.5	6.0	59.7	0.1	18.5	0.2	8.1
	미국	10.9	7.8	49.6	0.8	20.1	2.6	8.3
	오스트리아	3.7	2.4	81.0	0.6	4.3	1.0	7.0
	독일	6.6	4.8	74.8	0.2	7.4	0.1	6.2
	스페인	5.9	2.8	81.7	0.8	0.9	0.2	7.7
	이탈리아	5.3	2.1	78.2	0.3	3.8	0.1	10.2
	그리스	5.3	3.8	85.4	1.7	0.8	0.0	3.1

자료 : 미국 HRS(2004), 유럽 SHARE(2004)

첫 번째 유형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뚜렷이 높은 국가들로 스웨덴과 덴마크가 이에 속한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근로소득 비중이 높고, 공적이전소득 의존도 또한 높다. 두 번째 유형은 미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등으로 이 국가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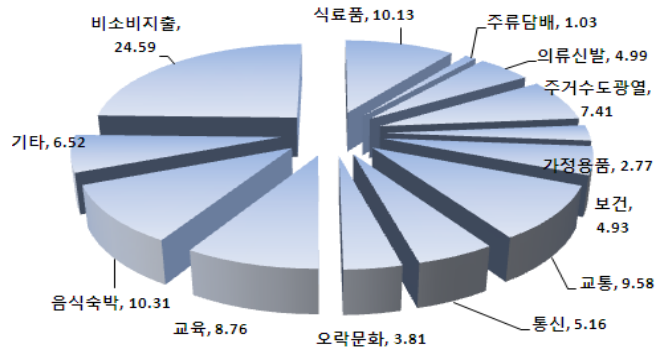
첫 번째 유형보다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약간 낮으나, 개인연금의 비중이 10% 수준으로 높다. 세 번째 유형은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국가(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로 근로소득의 비중은 낮은 반면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높다. 분석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면 근로소득의 비중은 미국을 제외하고 10%미만 수준으로 하락하는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 고령자의 소득구성에서 공적이전소득과 개인연금은 상충보완 관계로 공적이전소득이 높은 국가는 개인연금 비중이 낮은 반면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낮은 국가는 개인연금 비중이 높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반면 개인연금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하다. 고령자 가구소득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가구소득에 대한 다른 가구원의 기여이다. 고령소득에서 다른 가구원의 기여가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이들 국가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견주어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소득 구성의 해외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고령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서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연금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50~85% 수준에 이르며, 일부 남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50대부터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다.

<표 2-8>은 중·고령가구의 소비 품목별 구성 추이이다. 50대 가구의 소비 품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비는 1990년 19.3%에서 2000년 12.7%, 2010년 10.1%로 전체 가구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소비지출이 증가한 품목은 교통비, 통신비, 음식·숙박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0대 가구 역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1.2%에서 2000년 16.3%, 2010년 16.0%로 감소하였으며, 의류비 역시 1990년 8.0%에서 2010년 4.3%로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보건지출비와 통신비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소비 품목별 가계지출 변화는 고령가구의 가구원수와 관련이 깊다. 50~60대 가구원의 평균 가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 가구의 경우 1990년 평균 3.2명에서 2000년 2.9명, 2010년 2.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50대 가구는 1990년 4.2명에서 2000년 3.5명, 2010년 3.2명으로 감소하였다. 가구원수의 감소는 식료품비 및 의류비의 지출액 감소를 가져온 반면 가구주 연령의 증가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해왔다.

〈표 2-8〉 중·고령가구의 소비 품목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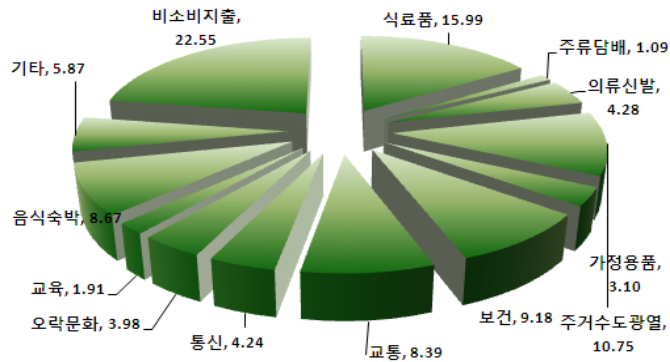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 (90-00)	△ (00-10)
50 대	소비지출	78.10	76.74	77.26	76.81	75.41	-0.84	-1.85
	식료품·비주류음료	19.29	15.27	12.71	11.45	10.13	-6.58	-2.58
	주류·담배	1.13	1.03	1.15	1.25	1.03	0.02	-0.12
	의류·신발	8.05	7.46	5.47	5.06	4.99	-2.58	-0.48
	주거·수도·광열	7.22	5.92	7.58	7.38	7.41	0.36	-0.17
	가정용품	4.77	3.87	2.97	2.59	2.77	-1.8	-0.2
	보건	5.15	4.39	4.23	4.62	4.93	-0.92	0.7
	교통	5.33	8.85	9.81	9.61	9.58	4.48	-0.23
	통신	1.61	1.79	4.32	5.70	5.16	2.71	0.84
	오락·문화	4.66	4.47	4.31	3.85	3.81	-0.35	-0.5
	교육	7.30	7.01	7.82	6.94	8.76	0.52	0.94
	음식·숙박	6.95	9.19	10.17	11.44	10.31	3.22	0.14
	기타	6.64	7.49	6.73	6.91	6.52	0.09	-0.21
	비소비지출	21.90	23.26	22.74	23.19	24.59	0.84	1.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
	가구원수	4.2명	3.7명	3.5명	3.2명	3.2명		
	가구주 평균연령	53.7세	54.0세	54세	54.1세	53.7세		
가구비중	12.1%	16.0%	18.6%	20.0%	23.0%			
60 대	소비지출	78.71	77.75	79.72	79.50	77.45	1.01	-2.27
	식료품·비주류음료	21.21	19.20	16.33	15.48	15.99	-4.88	-0.34
	주류·담배	1.18	1.11	1.24	1.45	1.09	0.06	-0.15
	의류·신발	8.01	6.84	4.97	4.60	4.28	-3.04	-0.69
	주거·수도·광열	7.11	7.16	9.12	9.66	10.75	2.01	1.63
	가정용품	5.74	3.88	3.03	2.90	3.10	-2.71	0.07
	보건	5.61	7.87	6.71	7.69	9.18	1.1	2.47
	교통	8.23	8.26	9.13	9.03	8.39	0.9	-0.74
	통신	1.78	1.72	3.66	4.86	4.24	1.88	0.58
	오락·문화	4.30	4.13	3.58	3.78	3.98	-0.72	0.4
	교육	3.49	3.08	4.50	3.47	1.91	1.01	-2.59
	음식·숙박	5.59	7.95	8.86	9.48	8.67	3.27	-0.19
	기타	6.47	6.53	8.59	7.11	5.87	2.12	-2.72
	비소비지출	21.29	22.25	20.28	20.50	22.55	-1.01	2.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
	가구원수	3.2명	2.9명	2.9명	2.7명	2.6명		
	가구주 평균연령	65.1세	65.8세	65.7세	66.9세	67.8세		
가구비중	3.1%	6.7%	11.5%	14.3%	19.0%			

자료 : 가계동향조사(1990~2010년)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10년)

[그림 2-20] 품목별 소비지출 구성 : 50대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10년)

[그림 2-21] 품목별 소비지출 구성 : 60대

4. 소비함수 추정

앞서 중고령 가구의 소득, 소비 구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고령자를 위한 연금제도가 아직 잘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은퇴시점에 이르면 가구소득이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하며, 소득의 하락과 함께 소비의 하락이 관찰된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의 상실은 곧 가구소득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며, 소비 또한 위축되기 때문이다.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Friedman(1957)의 ‘항상소득 이론’과 Modigliani & Brumberg(1962)의 ‘생애주기가설’이 있다. ‘항상소득이론’은 가계의 소비가 현재의 소득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모든 소득의 평균인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정운영·정세은, 2010). 이 이론에 따르면 가계소비는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하에 재화와 용역에 대한 최적 지출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현재 및 미래 소비의 현재 및 미래소득의 현재 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제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는 현재 및 미래에 벌어들일 모든 소득의 평균적 흐름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소득의 평균적 흐름을 프리드만은 항상소득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가계의 일시적인 소득은 유동적이지만, 항상소득은 일정하므로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소비는 전 생애에 걸쳐 균등하고 평탄하다.

‘생애주기가설’은 생애 전체에 대한 소득과 소비 흐름에 관한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소득은 점차 상승하여 장년기에 절정을 이루고 하락하는 포물선 형태인 반면, 소비는 소득보다는 대체로 완만한 형태이다. 소득과 소비의 수준은 전 생애에 걸쳐 균등하지 않고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며,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시점에는 저축을 하고 노년기에는 이전 시기의 저축한 자산을 소비하게 된다. 결국 이 두 이론에 의하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과 자산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소비지출 결정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소득이 우선적이지만, 가계의 기호와 선호도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호와 선호를 대리하는 변수로는 인구학적 특성인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원수, 주택 소유여부 등이 사용된다. 가령 가구주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취업자인 경우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을 높일 것이다. 또한 가계 소비를 결정하는데 소득의 각 항목별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기여도에 따라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4. 소비함수 추정에서는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를 구분하고 두 집단의 기본 특성을 살펴본 후 소비함수를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은퇴’는 개인의 근로생애에서 어느 한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event)으로 은퇴 전후시점 간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종단 자료가 필수적이다. 또한 ‘은퇴’의 정의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은퇴’란 안정적인 임금근로 후 정년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단조로운 근로생활을 영위하지 않는다. 특히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상 ‘은퇴’보다는 ‘부분은퇴(partial retirement)’, ‘점진적인 은퇴’ 등의 대안적 은퇴 개념에 관한 다수의 논의가 있어왔다. 한편 「가계동향조사」에



서는 가구주의 은퇴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이면서 가구주가 비취업자인 경우를 은퇴로 정의하고,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이면서 가구주가 취업자인 경우를 비은퇴로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9>는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특성이다. 은퇴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71.5세로 비은퇴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인 65.9세보다 5.6세 많다. 은퇴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 비은퇴가구는 2.3명으로 비은퇴가구의 가구원수가 0.5명이 더 많다. 비은퇴가구의 가구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은퇴가구 가구주의 가족부양 의무가 클 것임을 의미한다.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소득수준을 보면 은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원, 비은퇴가구는 217만원으로 비은퇴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4만원 더 많으며, 이전소득의 경우 은퇴가구는 71만원, 비은퇴가구는 33만원으로 은퇴가구가 38만원 더 많다. 총지출액은 은퇴가구는 115만원, 비은퇴가구는 163만원으로 비은퇴가구가 48만원 더 많다.

<표 2-9>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특성

(단위 : 명, 세, 만원)

구분	가구원 수	취업자 수	가구주 평균 연령	총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총지출
은퇴가구	1.8명	0.2명	71.5세	123	21	15	3.8	71	115
비은퇴가구	2.3명	1.5명	65.9세	217	107	61	1.4	33	163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9)

<표 2-10>은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액을 비교한 것이다. 식료품비의 월간 지출액은 은퇴가구는 20.5만원, 비은퇴가구는 25.4만원으로 비은퇴가구의 지출액이 4.9만원 더 많다. 주거·수도·광열비는 은퇴가구는 15.7만원, 비은퇴가구는 17.3만원으로 비은퇴가구가 1.6만원 더 많으며, 교통비는 은퇴가구 8.6만원, 비은퇴가구 16.9만원으로 비은퇴가구가 두 배 가량 더 많다.

〈표 2-10〉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품목별 소비 지출액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은퇴가구(a)	비은퇴가구(b)	a-b
소비지출			
식료품·비주류음료	20.5	25.4	-4.9
주거·수도·광열	15.7	17.3	-1.6
가정용품	4.3	5.2	-0.9
보건	14.4	12.3	2.1
교통	8.6	16.9	-8.3
통신	4.2	7.0	-2.8
오락·문화	4.0	4.9	-0.9
교육	1.7	2.3	-0.6
음식·숙박	6.9	14.8	-7.9
기타	6.2	11.5	-5.3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9)

이 밖에 통신, 오락·문화비, 음식·숙박비 모두 은퇴가구보다 비은퇴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이 큰데, 이는 비은퇴가구의 가구원수가 은퇴가구보다 큰데 기인한다. 소비품목 중 은퇴가구의 지출액이 큰 항목은 보건의료비가 유일한데, 은퇴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14.4만원으로 비은퇴가구(12.3만원)보다 2.1만원 더 많다. 은퇴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이 71.5세로 비은퇴가구의 가구주 연령(65.9세)보다 5.6세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표 2-11>은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총지출액 및 소비지출액 결정요인이다. 은퇴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수 및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가구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구 총지출액 간의 정(positive)의 관계가 관찰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총지출액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가구의 가구소득이 총지출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 전소득은 가구 총지출액에 정(positive)의 영향력을 미친다. 즉 은퇴가구의 경우 이 전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출액 중 소비지출액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2를 살펴보면 모형1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여러 변인들의 긍정적



효과가 발견된다. 은퇴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낮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액은 증가한다. 또한 가구 총소득과 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1〉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총지출액 및 소비지출액 결정요인

구분	총지출액(모형1)		총소비지출액(모형2)	
	은퇴가구 β	비은퇴가구 β	은퇴가구 β	비은퇴가구 β
가구주 연령	-.12	-.05	-.232**	-.16*
교육수준	.45*	.31**	.26*	.36**
가구원수	.12	.21**	.31**	.259***
경제활동상태(취업=1)	.064	.054	.08	.12*
주택소유여부	.16	.18	.05	.14
총소득(log)	.21	.203*	.15*	.205**
근로소득(log)	.23	.31*	-.12	.32*
사업소득(log)	.02	.053	.053	.031
재산소득(log)	.045	.006	.04	.12*
이전소득(log)	.26*	.016	.13*	.023
constant	6.78	2.51	8.21	5.1
R ²	.39	.38	.61	.45
F	8.12**	14.56***	14.3*	16.4**
D-w	2.01	1.94	3.1	2.1
N	11,225	8,918	11,225	8,918

* p< .05 ** p<.01 *** p<.001

은퇴가구와 달리 비은퇴가구는 여전히 가구주가 취업하고 있는 가구로 은퇴가구보다 가구원수가 많고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비은퇴가구의 특성은 소비함수 분석결과에 잘 나타난다. 비은퇴가구의 총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원수, 총소득, 근로소득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으며,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총지출액은 상승한다. 종속변인을 총소비지출액으로 한정하여 분석하면 비은퇴가구의 소비결정요인이 좀 더 선명히 드러난다. 가구주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은 증가하며, 총소득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비은퇴가구의 소비는 증가한다. 은퇴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이 소비 증가에 정적효과를 갖는 반면 비은퇴가구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소비 증가에 정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 대비된다.

제5절 결 론

본 고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소득·소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 나타나는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고용지표의 해외비교를 통해 한국 중고령자의 고용상황의 객관적 수준을 가늠하였다.

한국 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은 수준인데, 이는 성별로 차이가 있다. 고령남성(55~64세)의 경우 OECD 국가 중 고용률 상위그룹에 속하지만, 고령여성의 경우 OECD 국가의 중간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한국 고령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국가 중 고용률 상위그룹에 속한다. 한편 임금근로자 중 파트타임 비중만 비교할 경우 한국 고령근로자의 파트타임 비중은 OECD 국가에 견주어보아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 고령취업자는 낮은 시점까지 임금근로자로 남지 않으며,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령자 고용률 해외지표 비교를 통해 한국 중고령자의 높은 고용률은 고령남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가와 65세 이상 노령자의 높은 고용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둘째, 연령-소득 profile을 작성하여 생애소득 곡선 추이를 살펴보았다.

소득곡선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의 정점이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50대까지 꾸준히 소득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30대에 견주어 뒤쳐지지 않는 상당 수준의 소비를 향유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가구소득의 최정점은 저연령화되어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가구소득의 최정점은 47세(3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증가 폭이 매우 급해진 만큼 소득 최정점 이후 소득감소폭 역시 매우 가파르다. 가구소득 곡선의 패턴은 임금소득 곡선 패턴을 반영하고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률이 높아진 것이 가구소득 곡선에도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 셋째, 지난 20여 년간 중고령자의 가구소득과 소비 감소추이를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10년을 분석시점으로 설정하고 매 5년마다 중고령자의 상대적 소득과 소비 수준을 제시하였다. 각 시점별 30대 이하 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때 50대의 소득은 1990년 133.1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16.0, 2010년에는 106.3으로 하락한 것이 관찰된다. 소득 하락폭은 60세 이상에서 더 크게 1990년 95.8이었던 것이 2000년 80.3, 2010년에는 66.0으로 2010년 60세 이상의 상대적 소득수준은 30대 이하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중고령자의 가구소비 수준 역시 하락하였다. 1990년 50대의 소비는 145.0으로 30대 이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 121.2, 2010년에는 104.4로 50대의 상대적 소비수준은 크게 하락하였다. 60세 이상 역시 1990년 119.8에서 2000년 86.1, 2010년 65.0로 고령자의 상대적 소비 수준은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비교적 낮은 시점까지 중·고령자가 근로소득을 획득할 수 있어 가계소득, 소비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중고령기에 확보된 저축을 통해 근로소득이 상실된 낮은 시점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소비를 향유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달라진다. 노동시장에서의 조기은퇴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지출 구조는 불안정해졌고, 중·고령자의 소득과 소비는 크게 하락한다. 또한 아직까지 고령자를 위한 공적연금체계가 미비하여 고령자의 상대적 소득수준의 하락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
- 넷째, 중고령 가구의 소득·소비 구성의 시계열 추이를 검토하고, 해외국가와 비교하였다.

한국 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중고령 가구의 근로소득 의존도는 매우 높다. 2010년도 50대 가구의 근로소득 의존도는 65%에 이르며, 60대 가구 역시 가구소득 채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3.7%에 이른다. 또한 중고령 가구의 근로소득 의존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는데, 50대의 경우 1990년 59.0%에서 2000년 65.0%로 약 6%p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60대는 약 4.5%p 증가하였다.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국가들도 고령자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수준이나, 한국과는 달리 65세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 비중은 5% 내외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60~7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다¹²⁾. 한편 중고령 가구의 소비 품목별 구성 변화는 식료품 및 의류비 감소와 보건의료비 증가로 요약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고령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와 가구주 연령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12) 이들 국가들은 65세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살아가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의 급격한 감소나 노인빈곤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수명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 또한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과 조기은퇴로 가계부채는 증가하는 반면 저축액은 감소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아직까지 완전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없으며, 조기노령연금이나 특례노령연금, 특수직역연금을 합하여 60세 이상 인구가 약 17%만이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장지연 외, 2008). 공적연금체계가 아직 미비한 관계로 한국 고령자의 노인빈곤률은 현저하게 높으며, 소득불평등도 또한 높다. 또한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감소폭이 가파르는데, 이는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과는 달리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소득구성 상의 특성에 기인한다. 점차 가족 부양의식은 약화되고 있으며, 조기은퇴와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고령자의 소득구조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 노후소득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를 적정수준으로 구비하는 것이 향후 최선의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석상훈·장선구(2009),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 비교: 성장곡선모형을 통한 분석, 제10회 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 논문
- 윤재호·김현정(2010), 『은퇴와 가계소비 간 관계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안중범·전승훈(2004), 은퇴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노동경제논집』 제27권(3호), pp.1~23
- 장지연 외(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외(2009),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운영·정세은(2010),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제26권(4호), pp.21~48
- 황수경(2011),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33권 제3호 (통권 제112호)
- 황상필(2009),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Aguiar, Mark & Erik Hurst(2008), "Deconstructing Life-cycle Expenditure,"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3893.
-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 tes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pp.55~84.
- Banks, James, Richard Blundell & Sarah Tanner(1998), "Is There a Retirement-Savings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88(4), pp. 769~788.
- Bernheim, B. D, J. Skinner & S. Weinberg(2001), "What Account for the Variation in Retirement Wealth Among US Households?" *American Economic Review*, 91(4), pp. 832~857.
- Friedman, M(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sher, Jonathan, David Johnson, Joseph Marchand, Timothy Smeeding & Barbara Boyle Torrey(2005), "The Retirement-Consumption Conundrum: Evidence from a Consumption Survey," Retirement Research Center at Boston College, Working Paper 2005-14.
- Haider, Steven J. & Melvin Stephens Jr(2004)., "Is There a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Evidence Using Subjective Retirement Expectations,"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0257.
- Smith, S(2006).,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 Involuntary Early Retirement: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The Economic Journal: the Quarterly Journal of the Royal Economic Society*, Vol. 116, No. 510, pp130~148.

